

축하를 하고 작별을 고해라.

오늘 세계의 시혜자인 밥다다는 전 세계의 모든 자녀들을 직접 자신 앞에 두고 보고 있다. 모든 자녀들은 기억의 힘을 가지고 그들의 미묘한 형태로 마두반에 도달했다. 자녀들 하나 하나가 만남을 축하하는 순수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밥다다는 각 자녀들의 특기를 알기 때문에 모든 자녀들을 보며 매우 기쁘다. 각 자녀는 그 특기에 따라서 자신의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 브라민 영혼들과 브라민 가족의 새로움은 단 한 명의 브라민 영혼도 평범하거나 특기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데에 있다. 모든 브라민들은 고유한 탄생을 하였고 따라서 고유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모두가 유일무이하다. 즉, 너희들은 이러 저러한 특기로 인해서 모두가 특별한 영혼들이다. 너희들은 너희 특기의 고유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 모든 자녀들이 특별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밥다다는 너희가 자랑스럽다.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너희의 고유한 탄생과 너희의 고유함, 너희의 특기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라는 도취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도취감은 모든 종류의 나약함을 끝내 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나약함에 영원히 작별을 고하는 주된 방법은 너희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특별한 합류시대의 영혼들로서 맡은 특별한 역할을 축하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특별한 날이나 누군가가 특별한 과업을 성취했을 때 무엇을 하느냐? 그 사람을 축하한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는 서로를 축하해 준다. 합류시대의 하루 하루는 전체 사이클에서 특별한 날이고, 너희들은 이 특별한 시대의 특별한 배우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특별한 영혼들의 모든 행동은 고유하다. 즉, 모든 행동이 특별하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서로를 축하하고 또한 너희 자신도 축하하여라. 너희가 축하를 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나약함에 작별을 고하게 된다. 따라서 "끊임없는 축하를 통해서 작별을 고해라"라는 이 2종의 외국인 시즌의 요지를 기억해라. 너희들은 특히 작별을 고하고 축하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작별"과 "축하"라는 두 단어를 기억하여라. 너희가 아직도 작별을 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이미 작별을 고했다. 축복의 땅에 온다는 것은 영원히 나약함에 작별을 고함을 의미한다. 너희는 라반의 인형을 불태운다. 그러나 라반의 자손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온다. 너희의 물질 세계에서 재산이 많은 어떤 사람이 죽으면 오랫동안 떨어져있던 그 사람의 모든 친척들이 어디에선가 나타난다!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는 라반을 죽이지만 때로는 권리를 차지하러 오는 라반의 자손들을 없애는데는 나약해진다. 정욕, 화, 탐욕, 애착, 예고의 흔적은 너희가 투박한 형태와 아주 왕족다운 방식으로 그들에게 속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탐욕의 흔적은 욕구의 형태를 취한다. 그들은 "나는 탐욕이 없다, 그렇지만 난 모든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람의 필요에는 한계가 있다. 사람의 필요가 무한하면 그것은 탐욕의 흔적이 된다.

마찬가지로 정욕이라는 악덕 없이 영혼은 한결같이 정결함을 지키지만, 어느 특정한 영혼에게는 특별히 숙이고 들어가 지나치게 잘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왕족다운 형태의 사랑이다. 하지만 그 가외의 사랑은 곧 정욕의 흔적을 의미한다. 사랑 그 자체는 옳다, 그러나 무엇이든 가외의 것은 흔적이다.

마찬가지로 너희는 분노를 극복했지만, 어떤 영혼의 특정한 산스카라를 볼 때에는 지식의 화신인 너희의 단계에서 스스로 내려와서는 그 영혼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다. 이것은 그 영혼을 보거나 그와 접촉할 때에 너희의 단계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본성을 보고서 그에게서 떠나려고 하는 것은 혐오의 한 형태이고 그것 역시 분노의 한 형태이다. 너희가 분노의 불길에 타 버리지 않으려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너희가 떠나게 만드는 이 미묘한 혐오감도 분노의 불길의 흔적과 같다. 이에 대해서 말하는 왕족다운 말은 "내 단계가 망쳐지지 않도록 내가 멀어지는 것이 좋겠다"이다. 초연해지는 것과 멀어지는 것은 별개이다. 사랑하면서 초연함을 유지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렇다, 그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느끼면서, 미묘한 형태의 혐오감을 갖는 것은, 영원히 그 영혼을 미묘하게 저주하는 것이다. 안전을 지키되, 그 영혼에게 최종 선고를 하지는 말아라. 이런 방식으로 모든 사람의 특기를 보면서, 모든 영혼들에게 좋은 소망과 순수한 느낌을

가지면서, 이런 흔적들에 작별을 고해라. 너희의 고귀한 좋은 소망과 순수한 느낌을 버리지 말라. 너희 자신을 보호하려고, 다른 영혼이 넘어지게 만들어서 너희 스스로를 보호하지는 말아라. 누군가를 싫어하는 것은 그 영혼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다른 이를 넘어지게 만듦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은 브라민들의 특기가 아니다. 너희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도 보호해라. 이것이 특별해지는 것이고, 특기를 보는 것이다. 너희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이런 작은 일들이 두 가지의 형태를 취한다. 하나는 절망이고 다른 하나는 부주의함이다. 그러므로 이제 영원히 라반의 모든 흔적에 작별을 고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형태에 작별을 고하고 끊임없이 너희 안에서 아버지가 너희에게 준 특기를 보아라. 그것이 너희의 특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가 너희에게 준 특기라고 생각하여라. 너희가 그것을 자기의 특기라고 생각하면 교만의 흔적이 자랄 것이다. "왜 나의 특기가 쓰이지 않았는가?" "그들은 내 특기를 전혀 모른다!" "내 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 특별한 생의 특별한 선물은 특기를 갖는 것이다. 삶의 공여자가 너희에게 이 선물을 주었다. "내 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내 특기, 내 성격, 내 가슴이 말한다!" 또는 "내 가슴으로 느낀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걱정의 형태이다. 너희들 모두는 "걱정(worry)과 서두름(hurry), 그리고 카레(커리 curry, 실망, 즉 여러 가지 재료가 뒤섞여서 뒤죽박죽 된다는 뜻)"라고 말한다. 이해하느냐? 이 흔적을 끝내고 끊임없이 너희 자신과 남들에게서 아버지가 준 특기를 보아라. 이것은 너희 자신과 남들을 축하한다는 의미이다. 너희는 모든 흔적을 이해했느냐? 그러면 애착의 흔적은 무엇이나? 너희는 아직 애착의 제거자가 되지 못했느냐? 앗차.

애착의 왕족다운 형태는 너희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 또는 저것을 좋아한다. 나는 애착이 없다, 그러나 그것을 좋아한다." 너희가 만일 사람이나 물건을 좋아하려면 모든 사람과 모든 물건을 좋아해야 한다. 너희는 아름다운 옷 뿐 아니라 기운 옷도 좋아해야 한다. 너희는 36 가지의 음식 뿐 아니라 마른 자파티와 당밀도 좋아해야 한다. 너희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좋아해야 한다. 너희가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하거나, 어떤 물건을 다른 물건보다 더 좋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것도 사용하지 말아라. 만일 그것이 약이면 그것을 약으로서 먹어라. 그것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뭔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것에 끌린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애착의 흔적이다. 먹고, 마시고, 즐겨워해라, 그러나 모든 흔적에 작별을 고하고 모든 것을 시도해 보면서 초연함과 사랑을 지녀라. 알겠느냐?

모든 종류의 달성을 위한 모든 종류의 시설이 밥다다의 보물 창고에서 만들어졌다. 많이 먹어라, 그러나 혼자서 먹지는 말고 아버지와 함께 먹어라! 아버지와 함께 먹고 아버지와 함께 즐기므로써, 너희는 자동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선 안에 머물고, 슬픔이 없는 오두막 안에 머물 것이며, 그곳에는 라반의 흔적이 들어오지 못한다.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모든 것을 선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머무는 동안에 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것을 해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모든 것을 오락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겠느냐? 끊임없이 스스로를 즐겨라. 앗차.

2 중의 외국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즐길 방법을 알았느냐? 이것이 어렵지는 않다, 그렇지 않느냐? 아버지와 함께 앉으면 아무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모든 순간이 즐겁게 경험될 것이다.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너희 자신과 남들을 위한 축하의 말이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작별을 고하고서 여기에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들은 아무 것도 가지고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가기 전에 모든 흔적에 작별을 고하고 축하를 해 주어라. 너희 2 중의 외국인들 모두는 이것을 위해 준비가 되었느냐? 앗차. 밥다다는 또한 영원히 작별을 고하는 이들을 축하한다. 작별을 고한 데 대해 수백만 배의 축하를 보낸다. 앗차.

끊임없이 “만마나바브”인 이들에게, 즉, 스스로를 즐겁게 해주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의 세계를 한 아버지의 세계로 경험하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그런 특기를 보는 특별한 영혼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를 보낸다.

밥다다께서 봉사자들을 만나심:

너희 봉사자들은 마두반에서 어떤 선물을 받았느냐? 너희들은 즉각적인 결실을 받았고 또한 너희의 미래의 보상을 축적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2 중의 선물을 받았다. 너희는 행복이라는 즉각적인 결실을 받았고, 끊임없이 계속 요가를 하는 수행을 형성했다. 그러나 이것과 함께 너희는 또한 미래의 보상을 벌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2 중의 기회를 받았다. 여기에서 지내는 동안, 너희는 쉬운 योग, 카르마 योग 그리고 끊임없는 योग이 되는 수행을 했다. 떠나기 전에 이 산스카라를 확고히 해서, 너희의 집에 돌아가서도 이 산스카라를 지니게 만들어라. 심지어 낡은 산스카라가 너희의 의지에 반해서 사용되듯이, 이 산스카라도 확고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이 산스카라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계속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산스카라를 형성했기 때문에, 마야가 아무런 장애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이 산스카라들에 계속 밀줄을 그어라. 계속 그것들을 되새겨라. 여기에서 지내는 동안 너희는 장애로부터 자유로움을 유지했느냐? 너희는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 그렇지 않느냐? 누구와도, 마음 속에서조차, 아무런 갈등이 없었다, 그렇지 않느냐? 모임에는 모든 부류의 영혼들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아버지만 보았느냐, 아니면 형제와 자매들도 보았느냐? 끊임없이 아버지를 보는 이들은 밥다다에게 가까운 자녀들이다. 그러나 아버지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도 보는 자녀들은 가깝지 않다; 그런 자녀들은 멀리 있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모두 누구이냐? 너희들은 모두 가깝다, 그렇지 않느냐? 그러므로 끊임없이 이런 자각 속에서 계속 나아가라. 바깥에서 사는 동안에,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따라라"는 교훈을 확고히 하여라. 아버지를 따르는 이들은 아버지가 결코 어떤 것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보는 이들은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하며, 끊임없다. 앗차, 너희의 모든 소망이 충족되었느냐? 너희들 모두는 봉사에서 매우 좋은 역할을 했다. 좋은 역할을 했다는 징표는 너희가 자동적으로 다음 해에 초대를 받는 것이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너희를 기념하게 만드는 것이다. 저 기념물들은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기념물도 또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봉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모든 이들이 그 사람을 다시 초청해달라고 한다. 너희는 단순한 봉사자였던 데에서 끊임없는 봉사자가 되는 증거를 보여 주어야 한다. 모든 이들이 "이 사람을 여기에 두세요"라고 말해야 한다. 앗차.

밥다다께서 마두반 거주자들을 만나심:

너희 마두반 거주자들은 모든 결실의 화신들인데, 왜냐하면 너희 모두에게는 마두반의 칭송과 마두반의 특별한 공부, 마두반과 특별히 동반, 그리고 마두반의 특별한 분위기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바깥에서 온 이들은 그들의 모든 소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는 반면에, 너희는 이미 여기에 와서 앉아 있다. 육체적으로도 역시, 너희들은 끊임없이 밥다다와 함께 있는데, 왜냐하면 마두반에서는 모두가 사카르 형태가 함께 하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아버지와 육체적으로 함께 있는데, 왜냐하면 너희들은 육체적인 형태의 그분과 함께 있고 영혼은 어차피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너희들은 2 중으로 함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들은 모든 종류의 광산이 있는 곳에 앉아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모든 광산의 주인들이 되었다. 마두반 거주자들에게서 매 순간, 매 숨결마다 나와야 하는 노래는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네. 나의 보물 창고에는 아무 것도 부족함이 없네."이어야 한다. 마두반 사람들이 먹는 모든 것은 항상 신선하다. 항상 신선한 음식을 먹는 이들은 너무나 건강할 것이다! 너희 모든 영혼들은 축복을 받았다. 너희들은 밥다다의 보살핌으로 끊임없이 부양된다. 바깥에서 온 이들은 다른 종류의 분위기에서 지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밥다다가 그들에게는 어떤 하나의 축복을 특별히 주어야 하는 반면, 너희는 여기 축복의 땅에 앉아 있다. 바깥에서 온 사람들은 매년 신선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밥다다가 너희 각자에게 무슨 말을 해야겠느냐? 밥다다는 다른 이들에게 등대가 되고 발전소가 되라고 말한다. 바바가 너희에게도 같은 말을 해야겠느냐? 저 바깥의 사람들은 이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연꽃이 된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들은 사랑함과 초연함을 유지할 수 있다. 누가 너희의 집에 오더라도, 너희들은 그 사람을 손님으로 돌봐야 한다. 너희들은 모두 항상 집에 있다. 그들은 2중의 역할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2중의 힘으로 채워져야 한다. 그들에게 하는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세상의 대양에 떠 있는 배와 같은 역할을 하는 반면에, 너희들은 세상의 대양을 떠나 지식의 대양 가운데에 앉아 있다. 아버지가 너희의 세상이다. 앗차.

(1982/03/07 밥다다미팅 중에서)

질 문: “아버지가 너희의 세계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대 답: 어떤 경우든 지각은 세상에 끝난다, 그렇지 않느냐? 세상에는 사람과 사물, 두 가지가 있다. “아버지가 너희의 세계이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너희가 무엇을 얻든지 간에 그것을 한 아버지에게서 얻을 수 있고, 너희가 다른 모든 물건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또한 아버지에게서 얻을 수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그분이 너희의 세계이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의 관계는 아버지와 맺어져 있고, 너희의 연결은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다. 너희는 아버지와 함께 걷고, 앉아 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너희의 세계가 된다, 그렇지 않느냐? 앗차.

밥다다께서 호주 그룹을 만나심:

너희들 모두는 오늘 무슨 생각을 했느냐? 너희들 모두 마야에게 작별을 고했느냐? 이것에 관해 아직도 생각해 보고 싶은 이들은 손을 들어라! 너희가 지금도 그것에 관해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고 말한다면, 이것 역시 약한 바탕이다. 그것에 관해 생각한다는 것은 나약함이다. 브라마 쿠마르와 쿠마리가 하는 일은 마야의 정복자가 되고 남들도 마야의 정복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의 자연스런 할 일에 관해 생각해야 하느냐? 단지 이미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기만 해라. 작년에 너희가 여러 곳에 센터를 열겠다는 결의를 했는데, 그 센터들이 이미 열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느냐? 이제 센터가 몇 개가 되었느냐? 17 개이다. 너희는 단지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 생각이 이루어졌다. 마찬가지로 마야의 정복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라. 밥다다는 끊임없이 너희 자녀들의 용기를 축하한다. 계속해서 봉사에 더 많은 발전을 이루어라. 밥다다는 너희 자녀들 모두를 사랑한다. 밥다다도 역시 너희 동반자들 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 너희들은 모두 매우 귀중하다. 앗차.

축 복: 정확한 기억으로 끊임없이 무기들을 지니고 모든 힘으로 가득해지는 카르마 요기가 되어라. 정확한 기억이란 모든 힘으로 한결같이 가득한 상태로 머문다는 뜻이다. 역경이라는 형태로 적이 너희 앞에 왔는데 너희의 무기가 소용이 없다면 그럴 경우는 너희가 무기를 가진 자라고 불리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에서 기억을 하면 너희는 성공할 것이다. 단 1초도 행위를 행하지 않고는 머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는 요가 없이는 행위를 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의 무기들을 들고 있는 카르마 요기가 되어서 제때에 너희 지시에 따라 모든 힘을 사용해라, 그러면 너희가 정확한 요기라고 불릴 것이다.

슬로건: 생각과 행위가 위대한 자들은 모든 힘을 지닌,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들이다.

*** 음 샐티 O M S H A N T I ***